

정의선 부회장 현장경영 '결실'

현대차 친환경차 아이오닉, 싱가포르 '국민택시' 됐다

정의선, 현지서 경영진 만나
컴포트델그로와 계약 체결
내년까지 2000대 공급키로
친환경차 선도 이미지 굳혀



최근 개최된 현대차 전세계 대리점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왼쪽부터)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지에서 컴포트 델그로그룹 양반생 사장, 싱가포르 현대차 대리점 테오후생 대표 등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장 경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 최대 운수기업인 컴포트 델그로와 택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총 2000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싱가포르 친환경 택시 시장을 이끄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1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500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컴포트 델그로에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컴포트 델그로와 체결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200대 공급계약보

다 800대 늘어난 규모다.

전세계 대리점 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지에서 컴포트 델그로 경영진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컴포트 델그로는 지난 1970

년 설립된 싱가포르 최대 운수사업 그룹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60%(1만2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영국, 베트남 등에서도 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는 컴포트 델그로에 지난 2007

년부터 쏘나타(NF), i40(VF), i30(FD, GD) 등을 판매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싱가포르 택시시장 진출 13년만에 누적 2만 6000여대의 택시를 판매하게 됐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2만여대의 택시 중 현대차는 1만1000여대로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 택시시장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도 지키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선도하는 업체로 한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맞물려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전략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Grab)과 협력해 코나 일렉트릭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현지 고객들에게 친환경차 탑승 경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과도 협력해 코나 일렉트릭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현지 고객들에게 친환경차 탑승 경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시아 금융, 유통의 허브이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싱가포르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택시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현대차의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조선 피격 여파 정유업계 '먹구름'

운송 보험료 인상에 업계 '긴장'
"최악 경우 항로변경까지 고려"
공급 차질 → 원유가격 급등 우려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 최대 원유 운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고 후 운송보험료 인상 등으로 긴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수입 물량의 70%가량을, 중국도 8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런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우디 등 걸프국들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지만 국내 석유 운송 통로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곳의 정세 불안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피격사건으로 운송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른 곳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두바이(Dubai)유를 수입하는 길목이 막히게 되면 브렌트(Brent)유나 서부 텍사스(WTI)산 원유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해역의 입구로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곳은 폭이 30~4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란은 물론 어느 쪽이든 결심만 하면 군사적으로 쉽고 빠르게 봉쇄할 수 있는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 충돌로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연초 45.41달러에서 지난 21일 57.07달러까지 25% 급등했다. 이 기간 원유생산량은 4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이란간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5.74%가 급등했고, 지난 일주일 상승폭은 8.62%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후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했다. 이에 사우디는 하루 100만배럴 생산으로 화답했으나 공급과잉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재정이 악화됐다.

실제 사우디 5월 원유 생산량은 965만 배럴로 감산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 1월 OPEC 감산합의시 사우디의 생산량 목표 기준은 1030만 배럴이었다.

OPEC 감산합의가 6월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OPEC 국가들이 서둘러 증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우디 요청에 따라 쿠웨이트, UAE 등은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해에서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유조선이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2척), UAE(1척), 노르웨이(1척) 선사의 유조선이, 이번 달에는 노르웨이(1척)와 일본(1척)의 유조선이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로 공격받아 훼손됐으며 20일에는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드론)가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됐다. 미국은 이번 달 공격의 주체가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지목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 120억 투자유치 성공

작년 시리즈A 이어 시리즈B 유치
1000억 이상 기업까지 인정 받아

바로고는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 참여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기술보증기금, 신한캐피탈 등으로 각 사의 자체한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바로고는 이번 투자에서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5월 시리즈A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와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바로고는 배달 대행 사업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물류 사업 솔루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재 영입,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앞으로도 바로고와 바로고 구성원의 성장, 이윤 물류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바로고가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바로고

며 "바로고 등록 라이더와 가입 가맹점 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회사 정책을 마련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로고의 배달 주문 수행 건수는 2017년(1월~5월) 대비 2018년 같은 기간 67%, 2018년(1월~5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7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디야커피, 버거킹,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뿐 아니라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맨슬리키친과 같은 공유 주방 업체, 육그램과 같은 축산 유통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한국지엠 노조, 파업 못한다... 쟁의권 확보 불발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방안 모색"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내린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현장. /연합뉴스

사내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있다고 해도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있으나 이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향후 사측과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기자